

10/21/18

설교 제목: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일서 3장 4-24 절

- (요일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 (요일 3:5)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 (요일 3: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 (요일 3: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 (요일 3: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 (요일 3: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 (요일 3:11)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 (요일 3:12)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절관주** 히 11:4
- (요일 3: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 (요일 3: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절관주** 갈 5:21
-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 (요일 3: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요일 3: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 (요일 3:20)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 (요일 3: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 (요일 3: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 (요일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 (요일 3: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005년 어느날 서정인 목사는 한 병원 골수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 아이를 위하여 골수 이식을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정인 목사는 차인표 신애라로 인해 잘 알려진 비영리 단체 한국 Compassion 대표이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를 설립한 김준곤 목사의 사위입니다.

골수 이식 기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았는데 찾는 골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연락을 해 온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나 병원에서 아이의 병이 재발했으니 골수를 한 번 더 기증해 줄 수 있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한 사람의 골수를 이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 받을 수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지난 번 골수 기증할 때 목숨이 위태로웠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터라 이번에는 아내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렸습니다.

전문의인 매제는 또 다시 골수를 기증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렸습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병원에다 이번에는 골수 기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콰도르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버스 안에서 워싱턴 중앙 장로 교회 박 장로님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시지요. 제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 주시면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1% 가능성 밖에 없다고 포기할 수 있겠니?”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목사님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골수를 다시 기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자신은 부끄러운 목사라고 고백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병원에 가서 골수 기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골수 기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장의 긴 편지였는데 한 장 한 장이 눈물 자국 범벅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살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한테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듭니다.

(요일 3: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며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곧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요 13: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모두 포괄하는 율법의 완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각기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율법을 지켜 의롭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요일 3:11)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말하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듭니다.

(요일 3:12)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였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워 동생의 의가 자신의 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일 3: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분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미 겪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의로우심이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일 3: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아직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생을 얻은 것이 본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입은 성도의 마땅한 삶을 말합니다.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되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일 3: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빛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로 이제 받은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 25: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 25: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마 25: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마 25: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 25:44)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마 25: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 25: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마지막 날에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더니 이걸 또 무슨 말인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형제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받게 되는 복을 언급합니다.

(요일 3: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일 3: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3: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밀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 중 구원을 확증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큰 일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